



친정 SK 올린다

고효준 이적 후 첫 승 도전
“목표는 6이닝 무실점...
계획없이 던진 것 반성”

‘계획남’ 고효준이 친정을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한다.

KIA 타이거즈는 20일 ‘4강 라이벌’ SK 와이번스와 안방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KIA는 지난주 열세를 보였던 NC, 삼성, 두산을 잇달아 만났다. 어려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선발진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주면서 우천으로 취소된 한 경기를 제외하고 3승2패의 전적을 거뒀다.

선발진 안정화에 역할을 한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고효준이다. 18일 첫 선발 출격에서 5이닝 2피안타 3볼넷 7탈삼진 1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막은 고효준은 24일 NC 원정 경기에서도 5.1이닝 4피안타(피홈런) 3볼넷 3탈삼진 3실점(2자책)의 피장을 하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선발 한 축을 맡게 된 고효준은 30일 세 번째 선발 등판을 하게 된다. 고효준이 맞는 상대는 친정 SK다. SK는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KIA에게 4위 자리를 내주고 6위까지 추락했지만 남은 시즌에서 가을전지 티켓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라이벌이다. 여기에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좌완 김광현이 SK 선발로 나선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김광현에 무게가 쏠리지만 고효준은 나름의 루틴과 계획으로 승리를 그리고 있다. 간절함과 경험으로 선발 자리에 딱 맞게 몸과 마음을 준비해두었다. 나름의 선발 루틴이 있다. 그는 두 번째 선발 등판 다음날이었던 25일 그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선발 다음날 리닝을 하면서 몸을 푸는 다른 투수들과 달리 고효준은 트레이닝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며 피로를 푸는데 주력했다.

고효준은 “선발 다음날에는 최대한 쉬면서 몸을 회복한다. 이후 계획대로 케치볼을 하고, 피장을 하는 등 몸을 끝

■ 프로야구 순위 (29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75	1	42	0.641	0.0
2	NC	64	2	44	0.593	6.5
3	넥센	65	1	50	0.565	9.0
4	KIA	57	1	59	0.491	17.5
5	LG	56	1	59	0.487	18.0
6	SK	58	0	62	0.483	18.5
7	한화	52	3	61	0.460	21.0
8	롯데	51	0	64	0.443	23.0
9	삼성	50	1	63	0.442	23.0
10	kt	44	2	68	0.393	28.5

어올린다”고 설명했다.

선발 자리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도 머리에 새겨두었다.

KIA 이적 후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던 그는 “앞선 등판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초기 스트라이크 비율이 좋지 못했고, 초이닝은 실투가 있었다. 선발이라면 6이닝은 끝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실점을 하면 완벽하고, 포볼도 2~3개 정도로 묶고 삼진은 5개 이상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완벽한 선발” 고효준으로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말했다.

고효준은 볼넷, 탈삼진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았다. 특별한 목표와 계획 없이 흘러보낸 젊은 시절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고효준은 “예전에 던졌던 느낌이나 좋았던 느낌을 찾고 싶다. 어렸을 때는 계획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멋모르고 공만 던졌던 것 같다.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단 새 팀에서의 출발은 순조롭다. 기화와 믿음에 그에게 심리적인 여유와 자신감을 주었다. 이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에 더 자신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고효준은 “당연히 승리 욕심은 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승리를 챙기는 것보다는 팀이 이기는 것이 우선이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 상황이 되면 중간에 나가서 역할도 할 수 있다”며 팀 승리를 이야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임창용(왼쪽)과 두산 오재원(오른쪽)이 전날 경기에서 벌어진 견제 위협구 논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위험한 견제구 임창용 3경기 출장정지·사회봉사 120시간

위험적인 견제구를 던진 KIA 마무리 임창용이 3경기 출장 정지와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가 29일 서울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임창용의 위험 견제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위험 견제구를 던지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출장정지 3경기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창용의 출장정지 제재는 30일 SK와의 홈경기에서부터 적용된다.

문제의 장면은 KIA가 5-3으로 앞선 9회초 2사에서 발생했다. 볼넷으로 출루한 오재원이 도루로 2루를 훔치면서 2사 2루. 임창용이 수비수가 2루 근처에 없는 상황에서 주자 오재원의 머리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야수와 견제 사인이 맞지 않은 사인 미스”였다고 입장을 밝힌 임창용은 28일 경기에 앞서 이대진 투수코치와 두산 덕아웃을 찾아 오재원에게 사과했다. 오재원도 선배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KBO는 임창용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를 소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츠에서 열린 2016 리틀리그 월드시리즈 결승전에서 미주 우승팀 뉴욕 엔트웰에 1-2로 패한 뒤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리틀야구, 2등도 장하다

2년만에 월드시리즈 출전...미주 우승팀에 1-2 석패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리틀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희수 감독이 이끈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츠에서 열린 2016 리틀리그 월드시리즈 결승전에서 미주 우승팀 뉴욕 엔트웰에 1-2로 패했다.

0-1으로 팽팽하게 맞선 4회말 1사 후 뉴욕은 주드 아바데시와 라이언 하로스트의 연속 중전 안타로 1, 3루 기회를 만들었다. 뉴욕 4번타자 코너 러시가 유격수 키를

넘어가는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진 1사 2, 3루에서 잭 포코가 삼진을 당할 때 포수가 공을 뒤로 흘렸고 3루주자 하로스트가 홈을 밟았다.

한국은 5회초 1사 후 이유민이 우월 솔로 홈런을 쳐 1-2로 추격했다.

하지만 6회까지 열린 경기에서 추가점을 뽑지 못하며 한 점 차로 패했다.

2년 만에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은 아쉽게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준우승도 충분히 값진 성과다.

한국 리틀야구는 2014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다시 관심은 프로야구만을 향했다.

지난 6월 2016 세계리틀야구 아시아·태평양&중동 대회 정상에 올라 월드시리즈 출전권을 따낸 한국은 미국으로 건너가 인터내셔널 그룹 정상에 올랐다.

예선 3차전에서 2-3으로 석패했던 파나마와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 7-2로 되갚는 저력을 보였다.

결승전이 열리는 날, 경기장에는 관중 2만3211명이 들어섰다.

국내 경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열기 속에서 한국 대표팀은 미주 우승팀과 치열하게 싸웠고 충분히 한국 리틀야구의 힘과 세기를 과시했다.

결승전 선발로 나선 사이드암 정준호는 경기 뒤 눈물을 흘렸다.

정준호는 이날 4이닝 3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패전투수가 됐지만, 삼진 9개를 잡는 위력투를 선보였다.

경기 소식을 전한 미국 언론도 정준호의 호투를 칭찬했다.

한국 리틀야구 전체를 향한 칭찬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598

이승엽 한·일 600홈런 눈앞

‘국민 타자’ 이승엽(삼성)이 메이저리그 8명, 일본에는 2명만 기록한 600홈런을 정조준한다.

이승엽은 지난 24일 SK와의 홈경기에서 1390번째 타점을 기록하면서 양준혁이 가지고 있던 KBO역대 최고 기록인 1389 타점을 넘어섰다.

이승엽은 한·일 통산 600홈런과 KBO 리그 2000안타도 겨냥하고 있다. 일본에서 159개의 홈런을 터트린 이승엽은 KBO 리그에서는 439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며 598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이승엽은 KBO리그 홈런 부분의 ‘전설’이다. 개인 통산 홈런 2위인 양준혁의 기록이 351개, 현역 선수중에는 NC의 베테랑 이호준이 324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이승엽이 앞으로 두 개의 아치를 더 그려낸 600홈런의 대우입이 완성된다. 한일 통산 600홈런을 넘어 KBO리그 450홈런에도 11개를 남겨두고 있다. 또 이승엽이 8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2000안타 금자탑을 쌓게 된다. 이승엽은 팀 동료 박헌이(-9)와 함께 통산 8번째 2000안타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KIA의 ‘캡틴’ 이범호는 1500안타를 노린다. 앞으로 7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이범호는 26번째 1500안타의 주인공이 된다. KIA 김주찬은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과 100홈런 달성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18개로 자신의 역대 홈런과 타이틀을 이룬 김주찬은 100홈런에 1개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이적설 들은 것 없다...중국전 집중”

슈틸리케호, 내달 1일 러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이적설에 휘말린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24·토트넘)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2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표팀 소집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적과 관련한 질문에 “이적설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며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독일에서 인정해주셨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 현지 언론은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가 손흥민 영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럽 축구 전문매체 90min은 27일(한국시간) 손흥민과 볼프스

부르크가 이적에 관한 개인적인 조건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럽이적시장 마감은 9월 1일까지인데, 토트넘과 볼프스부르크가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손흥민은 일 년 만에 독일 무대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배경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전을 앞둔 소감에 관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악몽을 곱씹었다.

그는 “우리가 온두라스에 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듯이 축구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이번 경기는 올림픽만큼 중요하기에 최선을 다해 승리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온두라스전에서 패한 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다.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최근 “손흥민은 다친 곳 없이 돌아왔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올림픽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정신적으로 약간 힘이 들었을 뿐”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자주 올림픽 경기가 생각나더라.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리속이 맴돌았다”며 “좀 더 길게 올림픽 무대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끝나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 빨리 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구 국가대표 지원방침 명문화할 것”

서병문 협회장 “여자대표팀 지원 미숙 사과”

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 회장이 “국가대표 지원 방침을 명문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회장은 2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제는 “대표팀 지원 방안”이었다. 서 회장은 “국가대표에 걸맞지 않은 지원으로 배구팬들의 격노를 부른 과오와 실수를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운을 뗐다.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는 8강

진출에 성공했으나, 최종 목표였던 40년 만의 올림픽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네덜란드와 8강전에서 패한 뒤 대표팀 안팎에서 “협회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대표팀은 통역, 코치 등 스태프가 부족해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김치찌개 회식”으로 격려 자리를 끝내는 등 아쉬움을 부른 사연들이 회자됐다.

리우올림픽이 한창이던 9일 회장으로

선출된 서 회장은 “내가 비판받는 건 전혀 억울하지 않다. 전임 집행부 문제라고 해도 크게 보면 배구인인 내 잘못도 있다. 신임 회장으로 모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가대표의 생명은 자부심이다. 대표 선수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대표 지원 방침을 국격에 맞게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업무 파악 중인데 재정 문제는 실제로 열악하다. 빛이 산더미”라고 인정하며 “재정 문제를 해결할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회장단이 사비를 내놓아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배구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